

현대 패션에 표현된 그리스도교 이미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ligious Images in Contemporary Fashion

박 주 희* · 하 지 수

Park, Judy Joo Hee* · Ha, Ji Soo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Doctorate degree candid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look at meanings and formative features that make up the image of dress and especiall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dress, to illuminate the meaning of religion to people today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ristian expressions in contemporary fashion. Documentary research, a survey and case studies were used throughout the study.

Dress of the past used symbols and many of the formative features of the dress had significant Christian meanings, but contemporary fashion collections mostly borrowed faithful images from Christianity to simply make the illusion of such an image. Contemporary Christian-themed collections also corresponded greatly to the major trends of the time and season in particular. Religious and social reasons contributed to the change in Christian-themed fashion today, too. The neutrality of religion today led to religion being expressed through bold but popular and comfortable styles, and the global characteristic of Christianity today was expressed in a collection that displayed political, Christian and other religious symbols together. Diversity of religion was seen to make distinctions and order in the church more lenient, and contemporary collections had symbols that rather seemed to signify wealth and honor, than faith. The openness of religion is perhaps why spiritual images were simple rather than elaborate, and sexiness overlapped with Christian images.

As a result of studying Christian images in contemporary fashion, the significance of Christianity was found to have changed and Christian images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was found to be more superficial and about appearances compared to symbolic dress of the past.

Key Words : Religion, Christianity, Faith, Ethics, Divinity

I. 서론

최근 패션 컬렉션에서 종교적인 이미지가 많이 보여지고 있다. 예로 2005년 F/W 밀라노 컬렉션에서 DSquared2는 종교적인 이미지의 컬렉션을 제시하여 의복에 ‘Faith’, ‘Jesus loves me’ 등의 문구가 쓰여진 복식을 선보였고, 파리 컬렉션에서 Yves Saint Laurent은 17세기 플랑드르의 그림들에 나오는 수녀와 성직자 모습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을 발표했다. 또한, 2005년 6월 *Vogue Korea*는 “종교라는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이미지에 관한 기사를 두 페이지에 걸쳐 대대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트렌드가 공존하는 현대 패션에 특히 종교적 관심이 현대 패션에서 강한 또 하나의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복식의 의미와 조형적 특성을 문화적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시대에 따른 서양의 그리스도교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종교적 서양 복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현대 여성 패션에 표현된 그리스도교적 이미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현대 컬렉션에서의 그리스도교적 표현과 형태의 변화를 주의 깊게 고찰하였으며, 그 변화의 원인을 사회적이나 종교적인 관점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복식의 형태를 빌어 표현되는 현대인에게 부여되는 그리스도교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했다. 현대 패션에 종교적 이미지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의 큰 특징이므로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현대 사회와 종교, 그리고 종교적 표현의 도구로서의 현대 패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연구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서양의 사회 환경 및 문화의 변화를 고찰하고 이와 관련한 종교의 변화를 사적으로 고찰하여 종교 의미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파악한다.

둘째, 사례 연구를 위한 개념의 틀을 위해 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세부 이미지들을 구체화한다.

셋째,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은 복식의 변화를 사적으로 고찰한다. 복식에 반영된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사회적·종교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에 따른 조형성의 변화를 사적으로 고찰한다.

넷째, 현대 컬렉션에 반영된 그리스도교적 이미지와 그에 따른 조형성을 분석하고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그리스도교적 이미지의 변화를 분석한다.

복식과 종교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있으나 고신천(1988)¹⁾, 김영미(1993)²⁾, 그리고 임

1) 고신천 (1998), “중세 기독교 복식에 관한 연구 -로마 Catholic 복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상임(2001)³⁾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종교 복식으로 연구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대적으로 현대보다는 과거의 복식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고, 조형적인 특성보다는 그 상징성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그리스도교의 종교적 복식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적 이미지가 표현된 일반 복식까지 포함시키고자 했으며 상징성의 변화는 물론, 그에 따른 조형적 특성의 변화도 함께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현대 패션에 표현되는 그리스도교적 이미지의 형태를 더 깊게 이해하여 현대인과 다가오는 미래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패션디자인 발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사회와 종교, 그리고 종교와 복식의 관계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패션 디자인을 위한 다양한 이미지 표현에 새로운 영감과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 대상은 세계의 종교 중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은 복식으로 제한하였는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현대 패션은 서양 복식에서 유래된 것이며 서양의 역사를 볼 때 그 어느 종교보다도 주로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문헌연구, 설문조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을 통해 종교의 의미와 변화를 고찰하고 종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서양 그리스도교 복식의 변화의 원인이 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찰하였다. 연구의 시기는 서양 그리스도교와 종교적 복식의 변화에 관한 시각적 자료와 언어적 자료가 함께 남아있는 3세기부터 고찰하되 특히 그리스도교가 강하게 나타났던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를⁴⁾ 집중적으로 문헌과 사례 위주로 고찰하였다. 사진자료는 총 31개를 분석하였다.

그리스도교적 이미지의 구체적 분류를 위해 종교적 이미지 관련 다양한 단어들을 사전과 동의어 사전을 통해 찾아 나열하고 설문 조사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특성과 가치관을 반영하여 그리스도교적 이미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였다.

현대 패션에 대해서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25년의 여성 컬렉션 사례를 고찰하였다. 1980년부터 고찰한 이유는 이 시기부터 포스트모더니즘이 강하게 부각되었고 매우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며 표현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종교적 이미지에 따라 소재, 형, 디테일, 색의 조형적 요소들을 살피고 과거와 현대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조형적 요소의 고찰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지만, 조형적 요소들이 갖는 시각성과 상징성은 함께 고찰하였다. 컬렉션은 그리스도교적 이미지가 표현된 컬렉션으로 제한하였는데 컬렉션 제목에 ‘종교적’이라는

2) 김영미 (1993), “르네상스 아이콘화에 표현된 복식의 종교성과 세속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임상임, 이혜성 (2001), “비잔틴 성직자 服飾에 관한 연구 -회화(繪畵)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대학원논문집, 27, p. 207-314.

4) History of Christians (2005.12.22), 자료출처: <http://www.historyworld.net/wrldhis/PlainTextHistories.asp?groupid=211&HistoryID=aa22>

언급이 있거나 혹은 사진 자료에 그리스도교적인 상징이 확실하게 나타나며 동시에 컬렉션 제목이나 디자이너 주장의 인용, 또는 패션 전문 기자의 인영 등의 언어 자료에 ‘그리스도교적’과 관련한 단어가 등장한 경우만 그리스도교적 이미지가 표현된 컬렉션으로 판단하였다. 1980년부터 1999년까지는 미국 *보그(Vogue)*의 컬렉션 리뷰와 사진을 참고로 하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컬렉션이 상세하게 제시되는 영국 *보그*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로 하였고, 총 13개의 컬렉션을 고찰하였다. 1980년대에서 2개, 1990년대에서 2개, 그리고 2000년대에서 9개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자료들의 보관이 더욱 잘 되어 있었으므로 자료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교 이미지의 컬렉션이 과거에 2000년대보다 적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II. 종교의 정의 및 그리스도교 이미지 유형 분류

1. 종교의 정의

종교는 인간 문화와 삶과 관련이 깊어 인간의 행동과 말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인간 개인을 이루는 근간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예로부터 인간은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했고, 신과 함께 하는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 상징물, 의례, 함께 숭배하기 위한 공동체 등을 만들어왔다. 일상생활에서 종교인들은 종교적인 체험을 하며 종교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된다.

종교는 사회적인 현상일 뿐만이 아니라,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따라서 인간 개인에게 아주 중요하고 개인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이유로 종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이 변해왔지만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계속 강하게 인간 삶의 방향을 이끌며, 그 존재를 유지하여 온 것이다.

종교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도교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친구의 관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무 때나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근거로,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라고 써져 있으며 여기서 친구는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닌 굉장히 친하고 믿는 관계임을 가리킨다.

인간, 사회, 문화, 종교는 모두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한다. 그러므로 종교의 표현 방식이나 형식과 특성들은 변화 가능하지만, 종교 자체와 사회·문화와의 관계는 바뀌지 않는다.

2. 현대사회와 그리스도교

현대 사회의 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그 문화를 만들고 즐기는 사회 구성원들 또한 물질적으로 발전한 세계 속에서 매우 다양한 삶의 형태를 영위한다.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종교의 의미의 변화에 관한 문헌고찰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종교의 취향화 및 중립화, 지구촌화, 다양화, 그리고 대중화로 나누어 볼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종교의 변화가 그리스도교에서도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대 자유주의의 핵심 사상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다.⁵⁾ 개인주의와 다원주의는 현대 문화의 큰 특징이며 현대인의 생각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각 개인이 비판적인 선택을 해서 스스로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한다. 이러한 경향으로 현대 사회에서 종교도 종교의 선택도 예술적인 취향과 같이 하나의 취향의 문제가 된 것이다. 현대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공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묵묵히 개인의 선택을 서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강하다.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종교를 중립적으로 생각하고, 또 종교에 대해 사회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특정 지역이나 나라를 장악하는 종교도 전체적으로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인도에는 힌두교, 이슬람교, 시크교, 기독교 등 여러 종교가 공존하며, 헌법으로 정해진 국교가 없다. 그리스도교는 이와 같은 사회적 영향으로 전도의 어려움과 종교적 중립성의 극복의 문제와 같은 변화도 있었지만, 반면 자유로운 종교 활동 보장의 변화도 있었다.

현대 사회의 또 다른 대표적 특징 중 하나는 당연히 세계가 ‘지구촌’이라는 개념의 대두라 할 수 있다.⁶⁾ 텔레비전과 대중매체의 발전은 지구촌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로 세대 간의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대신 다른 나라의 같은 세대 간의 차이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지구촌화와 정보화 등 현대 사회의 변화들이 종교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과거에는 주로 서양에서 그리스도교를 믿고 동양에서는 불교를 믿었지만 더 이상 그런 경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종교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그리스도교도 지구촌화 현상이 가능해졌다.

전자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세계화의 큰 율활유로 작용했는데, 20세기 말 전자적인 것이 현대 사회의 환경을 크게 변용시켰다.⁷⁾ 정보와 지식의 교류로 인해 일반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의 양이 많아지면서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고 습득하기 위해 합리성을 중시하는 기준이 생겼다. 합리적인 것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중요해진 결과, 종교가 비합리적이라고

5) 임성빈(1997), “현대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p. 13.

6) Ninian Smart (2004), “세계의 종교-동굴벽화에서 현대의 다원주의까지” 서울: 예경, p. 205.

7) 카시와기 히로시 (1997), “20세기의 디자인” 서울: 조형교육, p. 188.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공개적으로 비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신종교 운동은 특정 지역만이 아닌 세계 전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다양하게 발전했다. 그리스도교도 종교 내 다양한 분파가 생겨났으며, 컬트를 비롯한 다양한 신종교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현대 문화의 범위는 과거에 비해 폭넓어졌지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문화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⁸⁾ 현대인들은 영화, 연극, 음악, 미술 등을 문화로 생각하고 신문의 문화 면에서 영화, 음악, 텔레비전 관련 기사를 찾을 수 있다. 현대 사회에는 젊은이들의 문화에 대한 영향력이 크므로 젊은이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의 차림은 문화적으로 크게 수용되고 영향력 있는 유행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같은 스타들의 간증과 퍼포먼스를 통해 그리스도교를 대중화 시키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표 1>에서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른 그리스도교의 변화를 요약하였다.

<표 1> 현대 사회와 그리스도교의 변화

현대 사회 특징	종교적 현상	그리스도교의 변화
-다원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종교의 취향화 및 중립화	-전도의 어려움 -종교적 중립성의 극복의 문제 -자유로운 종교 활동 보장
- 지구촌화 -문화의 다양화	종교의 지구촌화	-그리스도교의 지구촌화
-지식 교류의 활성화	종교의 다양화	-그리스도교 내 다양한 분파 -컬트를 비롯한 다양한 신종교 운동
-대중매체의 발달	종교의 대중화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종교 활동

3. 그리스도교 이미지 유형분류

복식에 나타난 그리스도교 이미지를 고찰하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교 이미지를 정의하고 분류하였다. 그리스도교 이미지 유형화 과정은 종교의 사전적 의미 분류, 설문조사를 통한 종교적 이미지 재분류, 그리스도교 가치 고찰 및 반영, 그리고 그리스도교 이미지 종합적 분류의 4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 이미지 유형을 결정하였다.

자료가 표현하고자 하는 종교적 이미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언어적 설명을 사용하였는데, 우선 영어 동어 사전(thesaurus)에서 *religious* (종교적)이라는 단어를 조사하였다. 영어로 찾아본 이유는 서양에서 시작된 종교이므로 영어로 고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종교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세분화하였다. 서양에서 그리스도교의 사회적

8) 임성빈 편 (1997), “현대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p. 21.

영향력이 커서 *종교적*과 *그리스도교적*이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동의어 사전은 『Collins Shorter English Thesaurus in A-Z Form』, 그리고 온라인상 동의어 사전인 『Thesaurus.com(Roget's thesaurus online)』과 『Merriam-Webster Online』을 검색하고 검색된 총 57 개의 단어들을 모두 나열하였다.

단어들의 특성을 고찰하여 신의 있는(*faithful*), 순수한(*pure*), 숭고한(*spiritual*), 정의로운(*righteous*)의 네 가지 이미지로 종교적 이미지를 분류하였고, 분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만 20세 이상의 성인 총 40명을 대상으로 동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종교적 생활을 하는 종교인의 의견과 비종교인의 의견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종교인의 비율은 82.5% 비종교인은 17.5%였으며, 남성이 55%, 여성이 45%로 구성되었다. 새롭게 추가하고 싶은 그룹이 있다는 사람들이 6명(15%)이었으며, 거기에서 세 번 이상(7.5%) 반복된 단어들로 새롭게 그룹을 지은 결과, *pietistic*(경건한 체하는) 이미지, *theological*(신학적인) 이미지, *rigid*(엄격한) 이미지의 세 가지 분류를 추가하였다. 사전에서 도출한 신의있는(*faithful*), 순수한(*pure*), 숭고한(*spiritual*), 정의로운(*righteous*)의 4가지 이미지에 *경건한 체하는*, *신학적인(theological)*, *엄격한(rigid)*의 3가지 이미지가 더해져서 7가지 이미지가 도출된 것이다.

문헌연구에서 고찰한 그리스도교의 가치로 특별히 믿음, 성스러움과 의로움 등을 중시한다는 결과가 성서적 근거와 함께 제시되었고, 그 외에 순수, 겸손함, 거룩함, 구원 등과 같은 가치들이 고찰되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을 1세기 당시의 주요 그리스도교 상징을 보면 하얀 옷이 순수를 상징했고,⁹⁾ 화려한 장식이 없는 암전하고 검소한 옷은 겸손함을 상징했고,¹⁰⁾ 린넨은 성스러움을¹¹⁾ 상징했으며 보라색은 거룩함을 상징했다는 기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발견된 가치들 중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들을 묶으면, *믿음과 구원*, *성스러움*, *순수와 거룩함*, 그리고 *의로움과 겸손함*의 네 가지는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가치임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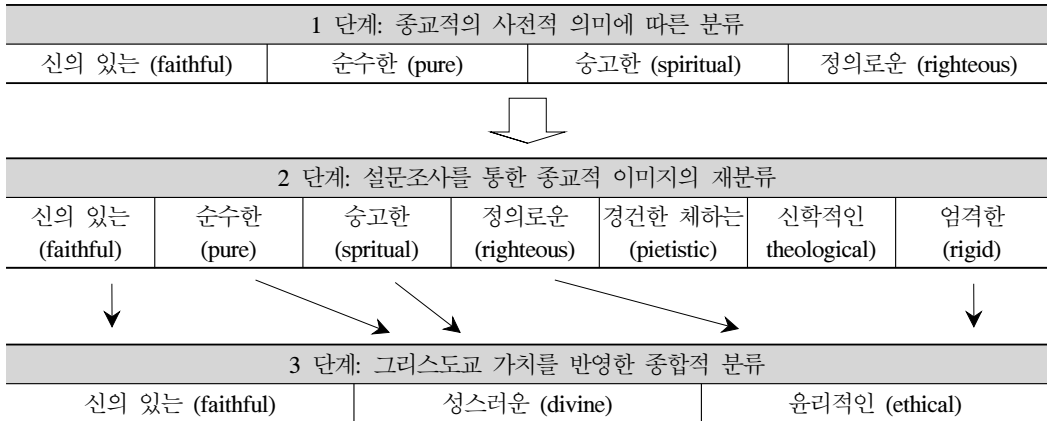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도출된 7가지 종교적 이미지와 그리스도교의 주요 가치 4가지인 *믿음과 구원*, *성스러움*, *순수와 거룩함*, 그리고 *의로움과 겸손함*, 총 11가지의 이미지를 그리스도교인 의류학 전문가 세 명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윤리적인(ethical)*, *신의 있는(faithful)*, *성스러운(divine)*의 3가지 이미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경건한 체하는(pietistic)* 이미지와 *신학적인(theological)* 이미지는 기본적인 종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먼저 제외했다. 남은 이미지 중 *정의로운(righteous)* 이미지와 *엄격한(rigid)* 이미지는 비슷하게 종교적인 의로움을 표현하므로 *윤리적인(ethical)*이라는 이미지로 묶었고, *순수한(pure)* 이미지

9) 마태복음 28:3-4: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10) 디모테전서2:9: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맑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1) 김진구 (1990), “聖書에 나타나는 染色色彩의 研究(II) - Scarlet, Blue를 中心으로” 한국생활과학연구, 9, p. 21.

<표 2> 그리스도교 이미지 유형 분류 과정



<표 3> 그리스도교 이미지 유형을 표현하는 단어

이미지	윤리적인 (ethical)	신의 있는 (faithful)	성스러운 (divine)
단어	canonical(규범적인) conscientious(양심적인) doctrinal(교의상의) ethical(윤리적인) exact(정확한) fastidious(세심한) honest(솔직한) honorable(명예로운) meticulous(꼼꼼한) punctilious(격식을 차리는) righteous(정의로운) rigid(엄격한) rigorous(엄한) scrupulous(양심적인) steadfast(확고한) upright(올바른)	believing(믿는) clerical(성직자의) churchly(교회에 충실한) deistic(자연 신교의) devotional(헌신적인) devout(믿음이 깊은) ecclesiastical(성직의) faithful(신의 있는) godly(신을 공경하는) ministerial(성직자) orthodox(정통파의) prayerful(잘 기도하는) priestly(성직자) sacerdotal(성직의) scriptural(성서 중시하는) sectarian(종파의)	divine(성스러운) noble(고결한) pure(순수한) reverent(경건한) sacred(신성한) sacrosanct(특히 신성한) spiritual(숭고한) supernatural(초자연의) pious(경건한)
이미지 정의	- 정의와 도덕성을 중시하는 이미지 - 그리스도교 규범을 중시하고 의로운 정신을 표현하는 것	- 교회와 연관이 있음이 확실하고, 신앙이 확실히 드러나는 이미지 - 믿음과 그 믿음의 표현을 중요시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	- 순수하고 신성한 영적인 이미지 - 절제, 금욕적인 삶, 깨끗함의 표현과 숭고함 또는 초현실적인 존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

와 숭고한(*spiritual*) 이미지가 종교적으로는 비슷한 성스러운(*divine*) 이미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었다. 신의 있는(*faithful*) 이미지는 그대로 하나의 이미지로 두었다. 이 세 가지

이미지는 주요 그리스도교 가치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복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미지들로 판단되었다.

세 가지 종교적 이미지를 설명하자면 윤리적인 이미지는 그리스도교 규범을 중시하고 의로운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신의 있는 이미지는 믿음과 그 믿음의 표현을 중요시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스러운 이미지는 절제, 금욕적인 삶, 깨끗함의 표 송고함 또는 초현실적인 존재를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이다. 아래의 <표 2>는 그리스도교 이미지 유형 분류 과정을 보여주며, <표 3>은 도출된 그리스도교 이미지 유형을 표현하는 단어를 보여준다.

III. 복식에 표현된 그리스도교 이미지

과거 복식에 표현된 그리스도교 이미지를 밝히기 위해 3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그리스도교 문화와 복식을 고찰하고, 특히 복식에서 표현되는 종교적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서적, 논문, 그리고 인터넷 자료와 신문 기사를 통해 사진, 그림, 글 자료를 고찰하였다. 그리스도교적 정신이나 의미를 보여주는 복식 사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언어적 근거가 마련된 자료는 총 31개였고, 이들 자료 중 각 이미지 별 자료의 수는 윤리적인 이미지로 분류된 자료가 11개, 신의 있는 이미지의 자료가 14개, 성스러운 이미지로 분류된 자료가 6개였다. 이미지 분류의 기준은 사진자료를 설명하는 언어적 자료에 이미지 유형 분류에 포함되는 형용사를 근거로 하였다.

윤리적인 그리스도교 이미지를 나타낸 복식의 예는 *St. Basil the Great and St. John Chrysostom*의 14세기 성당 내부 벽화를 통해 볼 수 있다. 성직자의 의복을 보면 십자 문양과 기하학적으로 조금 변형한 십자 문양을 섞어 기독교의 “화려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¹²⁾ “중후한 느낌”과 십자문양을 통해 윤리적인 그리스도교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 그리스도교 규범과 권위가 더더욱 돋보이는 복식 이미지이다. 옷 자체가 매우 꼼꼼하고 세심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동의어 사전에¹³⁾ 의하면 ‘꼼꼼함(meticulous)’과 ‘세심함(fastidious)’은 ‘윤리적(ethical)’의 동의어이기도 하다. 세부적으로 분석하자면 묵중한 주름이 있고 전체적인 복식의 형태가 길고 무겁다. 색은 적색, 흑색의 진한 색채와 백색이 특징적이며, 십자 문양, 기하학적으로 변형시킨 십자 문양과 십자 자수의 디테일이 있어 상징과 권위를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었고, 특히, 무겁고 긴 형태를 통해 종교적 엄격함과 윤리를 강조했다.

Giovanni Bellini의 1460-1470년 작품 *Pieta*는 신의 있는 그리스도교 이미지를 표현한 그림이다. 특히 성모의 복식을 통해 신의 있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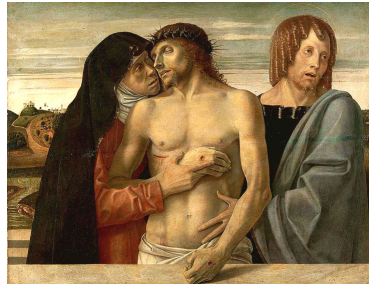
12) 임상임, 이해성 (2001), op. cit., p. 220.

13) Thesaurus.com (2005.3.17), 자료출처: <http://thesaurus.reference.com/>

적인' 모습이며, 성모는 '신을 공경하는' 것을 볼 수 있다.¹⁴⁾ '헌신하는(devoted)'과 '신을 공경하는(honorable)'은 모두 동의어 사전 상 '신의 있는(faithful)'의 동의어로 신의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이미지로 판단하였다. 간단하지만 무거운 적색의 튜닉과 검정색 맨틀을 착용하여¹⁵⁾ 진지하고 신의 있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무겁고 큰 실루엣으로 형은 몸매를 드러내지 않고 모두 감추며 색은 그리스도교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적색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하는 상징의 흑색을 사용하였다. 현재 수녀복의 기원이 되는 흰색의 쿠브르 셰프(couvre-chef)를 턱 밑에 착용하였는데 상징적 디테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함을 표현했다.



<그림 1> St. Basil the Great and St. John Chrysostom¹⁶⁾



<그림 2> Pieta, Giovanni Bellini 작¹⁷⁾



<그림 3> Angel with Lute. Merlozzo da Forlì 작¹⁸⁾

15세기 르네상스 초기의 Melozzo da Forlì 작품, *Angel with Lute*에서는 천사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중성적인 천사의 숭고함을 통해 성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튜닉에 허리띠를 묶고 유동적인 드레이퍼리로 공중에서의 모습을 표현했다. 이러한 복식 조형을 통해 '성스러운(divine)', 그리고 '초자연적인(supernatural)' 천사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¹⁹⁾ 유동적인 드레이퍼리로 부드러운 실루엣을 표현했으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소재로 적색과 초록색을 사용하였다. 튜닉을 띠로 묶어 튜닉을 블라우징(blousing)하는 디테일을 사용하였다.

14) 김영미 (1993), op. cit., p. 30.

15) Ibid., p. 30.

16) St. Basil the great and St. John Chrysostom (2005.4.20), 자료출처: http://www.auburn.edu/academic/liberal_arts/foreign/russian/icons/paraskeva-et-all.html

17) “피에타”, Giovanni Bellini작 (2005.4.20), 자료출처: <http://www.ti-amo.at/kunst/bellini-pieta-beweinung-christi.htm>

18) “주약의 천사” Merlozzo da Forlì 작 (2005.4.20), 자료출처: <http://www.presepecasarano.it/Melozzo-da-Forli.jpg>

19) 김영미 (1993), op. cit., p. 50

분석 결과 같은 유형의 이미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형적 특성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트레이퍼리와 울, 린넨의 소재, 그리고 사각형 형태의 천 등은 모든 이미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특성들은 일반적인 그리스도교 복식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윤리적인 이미지는 윤리적인 이미지에 속한 *canonical*(규범적인), *punctilious*(적식을 차리는) 등의 단어와는 거리가 먼 특성으로 보이는 화려한 소재의 사용과 보석이나 줄무늬나 선 장식 등이 가장 특징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화려한 소재와 보석을 통해 교회 내 질서와 계급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신의 있는 이미지에서는 특히 가볍게 흐르는 소재와 다양한 디테일, 그리고 진하지 않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색의 사용이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그리고 성스러운 이미지의 표현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부피가 큰 실루엣과 백합이나 성서와 같은 디테일 그리고 주로 흰색이 많이 이용되었다는 특징들이 있었다.

IV. 현대 패션에 표현된 그리스도교 이미지의 고찰

13개의 자료 중 윤리적인 이미지의 컬렉션이 3개, 신의 있는 이미지의 컬렉션이 7개, 성스러운 이미지의 컬렉션이 3개였다. 사진과 해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사회의 문화적·종교적 변화와 패션의 변화로 인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이미지들의 표현이 과거와는 매우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현대 연대별 변화를 보자면 1980년대 그리스도교 이미지 컬렉션의 특징은 화려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했고, 1990년대에는 1980년대에 비해 훨씬 단순하고 깨끗해졌고, 2000년대에는 다양한 테마의 컬렉션이 발표된 배경만큼 그리스도교 이미지를 표현하는 컬렉션에서 보여지는 패션 트렌드도 비교적 다양해졌다.

YSL Rive Gauche의 2005-2006 F/W 컬렉션은 17세기 플랑드르의 그림에 나오는 수녀들과 성직자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Vogue Korea*(2005. 06)에서 ‘엄격(rigid)’하고 섬세하다고 설명한다. ‘엄격(rigid)’은 윤리적인 그리스도교 이미지에 속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특이한 점이 윤리적 이미지의 표현을 타이트한 실루엣을 연출한 심플한 수트나 원피스들을 통해 하고 있으며, 디자이너 Stefano Pilati는 엄격하면서도 에로틱한 분위기를 동시에 연출하고 있다.²⁰ <그림 4>의 실루엣 상 특징은 타이트 실루엣으로 특히 허리가 많이 들어가고 스커트는 힙에서 조금 부풀어진 형태이다. 네크라인은 하이 넥 형태이고 소재는 울과 면을 사용했다. 흑색, 갈색, 흰색, 금색, 적색을 주로 사용하고 그리스도교 상징들인 자수 디테일과 성직자의 의복과 같은 네크라인 장식으로 믿음과 윤리를 표현하고 있다. 스타일은 매우 현대적인 스커트 수트로 모던하고 과거의 종교적 엄격함 보다는 패션성이 더 강하게 표현되었다.

20) *Vogue Korea* (2005.6), p. 147.



<그림 4> YSL Rive Gauche.
Paris. 2005-06. F/W²³⁾



<그림 5> Arkadius.
London. 2004. S/S²⁴⁾



<그림 6> DSquared2.
Milan. 2005-06. F/W²⁵⁾

윤리적인 그리스도교 이미지를 표현한 다른 예로 <그림 5>의 Arkadius 컬렉션이 있다. “Glory, Glory, Halleluah(영과, 영광, 할렐루야)”를 부르는 찬양팀의 음악을 배경으로 시작되었고 전체적으로 “promotion of world peace(세계 평화 진흥)”를 주제로 삼은 윤리적인 배경을 가진 컬렉션이었다.²¹⁾ 몸을 감는 듯한 실루엣, 면 소재, 흰색, 적색, 파란색, 초록색, 흑색, 그리고 디테일로는 아랍 터번 모티브를 딴 머리 장식, 자유의 여신상 프린트, 다윗의 별 프린트 등이 특징적이었다. 문화의 결합을 테마로 하여 윤리적이고 평등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2005-2006 가을, 겨울 컬렉션 중 DSquared2의 컬렉션은 신의 있는 그리스도교 이미지를 표현한 대표적인 컬렉션이다. 반항적이고 섹시한 이미지를 강하게 표현하기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이 시즌에는 ‘Angel(천사)’과 ‘Faith(믿음)’가 새겨진 옷을 발표하고 “Jesus Loves Me(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스웨터에 크게 쓰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매우 여성스럽고 종교적으로 느껴졌던 이 컬렉션은 예배당을 무대로 옮겨 흑인의 가스펠 송을 곁들여 쇼를 시작했다.²²⁾ 신의 있는 그리스도교적 이미지를 표현한 디자인임을 복식에 표현한 ‘Faith’라는 문구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림 6>은 몸에 피트 되는 모던한 실루엣에 스커트 길이는 짧고 경쾌하다. 소재는 니트, 실크 등 모던한 소재를 이용했고 노란색과 흑색의 대비로 강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직설적 그리스도교적 문구와 색상 그리고 현대적 스타일을 통해 주장에 더 당당함을 더해준다.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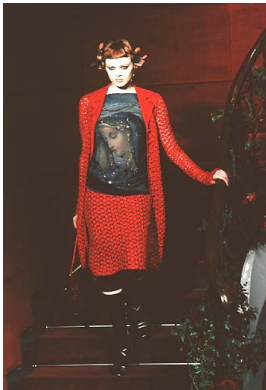
21) Vogue UK (2005.8.17), 자료출처: <http://www.vogue.co.uk/Shows/Reports/Default.aspx?stID=12547>

22) Vogue Korea (2005.6), p. 47.

23) YSL Rive Gauche, Paris, 2005-2006, F/W (2005. 8. 12), 자료출처: <http://www.vogue.co.uk/shows/photos/Default.aspx?ShowID=2440>

24) Arkadius, London, 2004, S/S (2005.8.14), 자료출처: <http://www.vogue.co.uk/shows/photos/Default.aspx?ShowID=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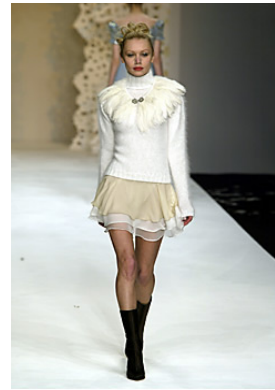
25) DSquared2, Milan, 2005-2006, F/W (2005.8.12), 자료출처: <http://www.vogue.co.uk/shows/photos/Default.aspx?ShowID=2484>



<그림 7> Dolce & Gabbana.
Milan. 1998. S/S²⁶⁾



<그림 8> Ralph Lauren.
Milan. 1999. S/S²⁷⁾



<그림 9> Elspeth Gibson.
London. 2003-04. F/W²⁸⁾

종교적인 문구와 디테일을 제외하면 전혀 종교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상적인 복식들이다.

<그림 7>의 Dolce & Gabbana 1998년 컬렉션도 “about a religious procession in Naples(나폴리에서의 종교적 행진에 관한 것)”라고 설명되어서²⁹⁾ 신의 있는 이미지를 표현한 컬렉션이다. 약간 타이트하면서 부드러운 실루엣이고 소재는 스트레치 메쉬(stretch mesh)와 울이다. 색은 청록색, 흑색, 적색이 이용되었고 디테일로는 성모자의 이미지가 드레스에 프린트 되었다. 그리고 보석과 시퀀스(sequin)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고 베일도 썼다. 색상들은 성서에 많이 나타나는 색이다. 하지만 타이트한 실루엣과 하이힐을 더해 모던하게 그리스도교적인 스타일을 재해석하였다.

성스러운 그리스도교 이미지를 표현한 현대 컬렉션의 예로는 *U.S. Vogue*(1999.01)에 ‘spiritual chic’로 묘사되는 Ralph Lauren의 1999년 S/S 컬렉션을 들 수 있다<그림 8>.³⁰⁾ ‘Spiritual’은 ‘성스러움(divine)’의 동의어 사전적 동의어로 성스러운 종교적 이미지를 표현한 컬렉션으로 포함시켰다. ‘Pure white’를 이용하여 성스러운 이미지를 더욱 강화했다. 대부분의 복식 아이템들은 흰색이었고 이외에 청색, 적색, 흑색 등 종교적인 색들이 주를 이루었다. 편안하게 피트 되는 헐렁한 실루엣에 직선적인 선이 특징적이다. 소재는 면과 실크이고 특별한 디테일 없이 매우 단순한 디자인이다. 단순한 디자인과 단순한 메이크업과 헤어와 함께 완전 백색의 옷을 입힘

26) Dolce & Gabbana, Milan, 1998, S/S (2005.8.14),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27) Ralph Lauren, Milan, 1999, S/S (2005.8.12),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WRTWspring99/RALPH_LAUREN/index.html

28) Elspeth Gibson, London, 2003-2004, F/W (2005.8.14), 자료출처: <http://www.vogue.co.uk/shows/photos/Default.aspx?ShowID=813>

29) *U.S. Vogue* (1998. 1), p. 57.



30) *U.S. Vogue* (1999.1), p. 120.

으로써 성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Vision of Eden(에덴 동산의 환상)”을 제목으로 한Elspeth Gibson 컬렉션도 ‘성스러운’의 동의어인, ‘pure(순수한)’ 느낌의 컬렉션으로 설명된다<그림 9>.31) 부드럽게 퍼지는 선과 여성스럽게 허리는 들어가는 실루엣으로 이루어졌고 소재는 쉬폰과 레이스이다. 흰색과 베이지색만이 사용되었고 디테일로는 자수, 레이스, 비즈 장식과 꽃무늬 장식이 있다.

그리스도교 이미지를 표현한 현대 컬렉션에서 색채, 소재 등을 통해 그리스도교를 표현하

<표 4> 과거 그리스도교 복식과 현대 그리스도교 이미지 패션 비교

이미지	사진		과거와 현대의 표현에서의 유사한 점		과거와 현대의 표현에서의 다른 점	
	과거	현대	과거	현대	과거	현대
윤리적인			-흰색 길옷 -그리스도교 상징인 십자문양, 기하학적으로 변형시킨 십자 문양 -십자 자수 디테일	-흰색 블라우스 -그리스도교 상징인 새, 컵 등의 문양 -스커트에 자수 디테일	-길고 무겁고 큰 형태 상이한 형 -종교복으로 서 십자 문양이 종교적 상징적 의미를 가짐	-타이트 실루엣, 짧은 스커트 길이 -그리스도교적 장식들이 장식적 기능과 이미지 표현 기능을 더 가짐
신의있는			-검정색 맨틀 -머리를 덮는 맨틀 -쿠브르 -쉐프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느낌 표현	-흑색 모자와 스커트 -모던 모자 -스웨터의 글자로 예수에 대한 사랑 표현	-사랑과 슬픔의 분위기 -어둡고 무거운 느낌의 소재	-발랄하고 당당한 분위기 -현대의 반짝이는 소재
성스러운			-중성적인 이미지	-중성적인 이미지	-드레이퍼리로 부드러운 실루엣 표현 -적색 블라우스와 초록색 튜닉 -네크라인 장식, 띠로 튜닉 블라우징	-직선적인 실루엣 -흰색 터틀넥스웨터와 흰색 바지 -장식적인 디테일 없음

31) Vogue UK (2005.8.17), 자료출처: <http://www.vogue.co.uk/Shows/Reports/Default.aspx?stID=8897>

려고 한 노력들도 있지만, 당시에 유행하는 패션 트렌드에 맞추어서 스타일을 선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류 트렌드의 실루엣이나 소재 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교 이미지의 컬렉션들은 확실히 과거 그리스도교 이미지의 복식과는 다르다.

<표 4>는 과거 그리스도교 복식과 현대 그리스도교 이미지 패션의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 내용이다.

V. 결과 및 결론

본 연구는 과거와는 상이하게 표현되는 현대 패션의 그리스도교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그리스도교 자체의 성격이 과거와는 달리 변화했음은 물론, 특히 신의 있는 그리스도교적 이미지에 대한 견해가 과거에 비해 현대에 와서는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거에는 신의가 가장 중요했고 이를 복식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했지만 현대에서는 실제로 신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미지만을 차용하여 과장된 그리스도교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패션 트렌드를 반영하여 표현하여 시대에 더욱 적합한 유행하는 스타일을 선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종교가 취향화 되고 사회에서의 종교적 영향력이 감소하여서 종교의 이미지가 부드러워졌고, 따라서 여성 복식에서의 종교적인 표현은 더욱 여성스럽고 부드럽게 변화했다. 실루엣은 과거와 비슷하게 여전히 부드럽지만 캐주얼하고 섹시한 느낌으로 타이트한 실루엣이 등장하기도 했다. 몸을 은폐하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적 정신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현대 컬렉션은 진실된 그리스도교적 믿음의 표현이 아니므로 그리스도교를 패러디(parody)하여 오히려 더 섹시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디테일과 소재는 매우 다양해졌으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의 대중매체 발달과 대중문화의 발달로 인해 종교도 대중화되어 일반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젊은 모습으로 많이 변했기 때문이다. 종교가 자유롭고 개인적인 것으로 변한 만큼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 방법과 그리스도교를 표현하는 방식이 디자이너에 따라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스타일들이 종교적으로 공통적으로 전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종교에 대한 이런 여러 견해와 과장된 표현이 모두 현대 사회에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색의 사용에서는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리스도교에서 색의 상징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적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복식과 디자인에 있어서도 이미지 표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지 별로 비교하자면, 먼저 윤리적인 그리스도교적 이미지는 과거에는 헐렁한 실루엣으로 주로 표현이 되었는데 현대에는 타이트하고 각진 어깨 등으로 파워풀하고 당당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현대에서는 종교보다 개인의 당당함과 멋이 더 중요했다. 종교가 다양해지고

그리스도교 내 계급적 질서가 과거에 비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종교적 권위보다는 부와 멋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신의 있는 이미지를 표현한 복식은 과거에는 드레이퍼리가 많이 등장했고 주로 사각형의 큰 천을 입었다. 하지만 현대 컬렉션에서는 몸에 붙는 옷의 형태도 있었다. 개인주의와 자본주의가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는 종교가 개성 있고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그리스도교적 컬렉션들이 색시하고 대중적으로 어필하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성스러운 그리스도교 이미지의 현대 컬렉션에서는 그리스도교적 순수의 상징 보다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순수의 표현에 더 비중을 두고, 그리스도교적인 이미지만을 빌어 신비한 표현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특히 성서적 순수함보다는 심플함과 스포티함 등과 같은 현대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그리스도교 의미는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 포함된 모든 과거 복식과 현대 컬렉션을 비교하면 공통적으로 차이점이 있는 이유는 과거에는 그리스도교적 상징을 이용하여 의미 표현을 중시하였지만 현대에는 상징적 의미 보다는 이미지 표현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현대 컬렉션들은 그리스도교적 이미지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표현에서는 자유롭고 과거에 비해 다양하고 과감한 옷 스타일을 선보였다. 현대 사회에서의 종교의 특성으로 인해 현대 컬렉션에서 그리스도교의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현대 컬렉션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의미를 진중하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과거 복식을 고찰할 때 모든 시대를 골고루 보지 못했다는 점과 둘째, 언어적인 틀을 이용하여 복식을 고찰하였는데, 언어적 의미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변하여서 같은 단어로 설명되는 이미지일지라도 정확히 같은 이미지의 표현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의미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후속 연구에는 언어적 근거뿐만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주장이나 조형적 상징과 같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단서를 근거로 종교적 이미지를 고찰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신천 (1998). 중세 기독교 복식에 관한 연구 -로마 Catholic 복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 (1993). 르네상스 아이코화에 표현된 복식의 종교성과 세속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구 (1990). 聖書에 나타나는 染色色彩의 研究(II) - Scarlet, Blue를 中心으로. 한국생활과학연구, 9권, p. 13-22.
- 비전 성경(2002). 서울: 티라너스 프레스.

이혜성, 임상임 (2001). 비잔틴 성직자 服飾에 관한 연구 -회화(繪畵)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논문집, 27권, p. 207-314.

임성빈 (1997). 현대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카시와기 히로시 (1997). 20세기의 디자인. 서울: 조형교육.

Ninian Smart (2004). 세계의 종교 - 동굴벽화에서 현대의 다원주의까지. 서울: 예경.

History of Christians (2005.12.22), 자료출처:

<http://www.historyworld.net/wrldhis/PlainTextHistories.asp?groupid=211&HistoryID=aa22>

Thesaurus.com (2005.3.17), 자료출처: <http://thesaurus.reference.com/>

U.S. Vogue (1998. 1)

U.S. Vogue (1999.1)

Vogue Korea (2005.6)

Vogue UK (2005.8.17), 자료출처: <http://www.vogue.co.uk/>

그림 출처

<그림 1> St. Basil the great and St. John Chrysostom (2005.4.20),

자료출처: http://www.auburn.edu/academic/liberal_arts/foreign/russian/icons/paraskeva-et-all.html

<그림 2> “Pieta”, Giovanni Bellini작 (2005.4.20),

자료출처: <http://www.ti-ammo.at/kunst/bellini-pieta-beweinung-christi.htm>

<그림 3> “Angel with Lute” Merlozzo da Forli 작 (2005.4.20),

자료출처: <http://www.presepecasarano.it/Melozzo-da-Forli.jpg>

<그림 4> YSL Rive Gauche, Paris, 2005-2006, F/W (2005. 8. 12),

자료출처: <http://www.vogue.co.uk/shows/photos/Default.aspx?ShowID=2440>

<그림 5> Arkadius, London, 2004, S/S (2005.8.14),

자료출처: <http://www.vogue.co.uk/shows/photos/Default.aspx?ShowID=1015>

<그림 6> DSquared2, Milan, 2005-2006, F/W (2005.8.12),

자료출처: <http://www.vogue.co.uk/shows/photos/Default.aspx?ShowID=2484>

<그림 7> Dolce & Gabbana, Milan, 1998, S/S (2005.8.14),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그림 8> Ralph Lauren, Milan, 1999, S/S (2005.8.12),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WRTWspring99/RALPH_LAUREN/index.html

<그림 9> Elspeth Gibson, London, 2003-2004, F/W (2005.8.14),

자료출처: <http://www.vogue.co.uk/shows/photos/Default.aspx?ShowID=813>